미 연준, 추가 부양책 가능성 시사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 연준은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다소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추가 부양책 시행에 대한 여지를 남김.

- 연준은 실업률이 수개월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민간소비 회복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 상반기 경기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, 이는 경기가 미미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6월에 비해 비관적인 것임.
- 연준은 성명에서 주택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물가도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함.
-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몇 분기 동안 저성장을 유지한 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추가부양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책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부양책 시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.

■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경기마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, 향후 발표될 실업률 추이가 추가 부양책 시행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- 7월 31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개인 소득이 0.5% 증가한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,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.
- 톰슨 로이터의 설문 결과 3분기 S&P500 지수에 등록된 기업들의 실적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ISM제조업 지수도 지난 3년 중 최저 수준인 49.8을 기록하는 등 기업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냄.
- 다음 FOMC 회의는 9월 12일과 13일에 예정되어 있으며, 그 이전에 7월과 8월의 실업률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부양책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.

(Bloomberg, 8/2 등)